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주택 착공 건수 경총... 2016년 이래 최대
- Bloomberg: 파월 의장, 의회에서 금리 임시 중단 설명 예정
- WSJ Real Time Economics: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줄어 - 채용은 늘어나는 특이한 상황 - 글로벌 인플레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 서구 기업들, 중국 소비시장에서 고전 등

[미국 금융]

- WSJ: 월스트리트, 더 많은 국채 구매
- Bloomberg: 과도한 자동차 대출 미국인 늘고 있다

[중국 경제]

- WSJ: 중국, 차입 금리 또 다시 인하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NYT: 사무실 복귀 절박한 단계에 접어들다
- CNN Business: 비즈니스 리더들 “직원 사무실 복귀 계획 중”
- CNN Business: AI drive-thrus, 비즈니스 효과 여부 논란
- Bloomberg: Morgan Stanley “아마존 뷰티 분야에서 월마트 추월할 것”
- CNBC: 아마존, 두 번째 본사 지은 이유 및 팬데믹의 영향

[보고서]

- McKinsey & Company: 교통 모빌리티의 미래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Housing Starts Surge Most Since 2016, Exceed All Estimates

미 주택 착공 건수 경총... 2016년 이래 최대

- 5월 미 주택 착공 건수가 기대치 않게 지난 2016년 이래 최대치로 늘었다. 신축 신청 건수도 증가해 주택 건축이 경제성장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 오늘 화요일 관련 정부 통계에 따르면 신축 건수가 21.7% 늘어난 연율 1백 63만채로 지난 1년여 기간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나타났다. 예상치보다도 많았다.
- 향후 건축을 추정할 수 있는 건축 신청건수 5.2% 늘어난 연율 1백49만채로 나타났다. 한가구 신청 허가 건수도 늘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Powell Faces Tricky Task of Explaining Rate Pause in Congress

파월 의장, 의회에서 금리 임시 중단 설명 예정

- 파월의장은 이번주 의회 보고에서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올랐는지 그리고 금리 경로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물론 은행과 금융 관련한 혼란이 개선되었지만, 연준의 신용 긴축이 경제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이것이 연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답변해야 할 숙제가 있다.
- 파월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물가 상승 압력을 막기 위한 노력에서 후퇴하지 않겠다’는 점을 안심시켜야 하며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올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 바꾸어 말해 경제 회복을 바라고 있는 민주당은 추가 금리 인상에 경고하려는 입장인 반면에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좀처럼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파월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WSJ Real Time Economics: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줄어 - 채용은 늘어나는 특이한 상황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등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줄어]

- 미 민간 기업 종업원들의 주간 근무 시간은 5월에 평균 34.3시간으로 밝혀졌다. 팬데믹 전인 2019년보다 줄었고 2021년 1월의 평균 최고치 35시간에 밀돌았다.
- 좋지 않은 신호다. 현재 성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일부 고용주들은 경기 침체에 대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채용은 늘어나는 특이한 상황]

- 이번에는 특이한 상황이다. 이례적으로 팬데믹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신호가 잘못된 경보일지도 모른다.
- 실제 고용주들은 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경기 침체시 하지 않던 인력 충원을 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 세계 중앙은행들은 작년에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했다. 중앙은행들은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 부유한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전망을 급격히 상향 조정하고,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투자자들에게 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정책 입안자들이 고물가에 맞서 싸운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먼 상황이다.

[선진국 금리 인상으로 향후 주택 비용 상승 위협]

- 서구의 중앙은행들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위험을 무릅쓰고 현재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연준, 유럽중앙은행 및 기타 선진국의 당국자들은 단기 금리를 인상하여 모기지 금리를 상승시킴으로써 급격한 물가 상승을 제어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주택 건설을 위축시키고 주택 부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결국 이는 향후 몇 년 동안 임대료와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는 미국 도심에 베팅하지 않는다]

- 사무직 근로자들이 재택근무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현재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도심과 관련된 투자는 가격이 하락세로 거래되고 있다.
- 투자자들은 뉴욕 지하철과 버스와 연계된 채권에 대해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다운타운 중심의 부동산 투자 신탁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절반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 채권 보유자들은 오피스 빌딩 채권을 보유하기 위해 추가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 기업들, 중국 소비시장에서 고전]

- 불과 5년 전만 해도 중국 소비자 시장은 외국 브랜드 시장이 장악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경제 회복이 미지근한 상황에서 중국 바이어들은 글로벌 소비지 브랜드보다 자국 브랜드에 눈을 돌리고 있다.

[미 다국적 기업, 글로벌 최저세 등 부담 커]

- 이 회사들은 향후 수년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세금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연방의회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 기업들은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세 때문에 외국에서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더욱이 2026년에는 2017년 세법의 오랜 지연 조항 때문에 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도 인상된다.

[미국 금융]

WSJ: Wall Street Buys More T-Bills, Parks Less at Fed 월스트리트, 더 많은 국채 구매

- 머니 마켓 펀드가 연방 준비은행 차입 프로그램에 현금을 적게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부채 상한선 싸움 이후 정부 금고를 보충하려는 노력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다는 신호로 보여진다.
- 분석가들은 대신 정부가 연말까지 최대 1조 달러를 차입할 계획으로 발행하는 신규 국채 매입 계획 때문에 자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이럴 경우 단기 채권이 시장에 넘쳐나면 변동성과 정부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Bloomberg: More Americans Are Getting Auto Loans That Exceed the Worth of Their Cars

과도한 자동차 대출 미국인 늘고 있다

- 팬데믹 기간동안 차량 가치가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차량 값어치를 초과하는 자동차 대출을 받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 중고차 대비 대출 비율인 2021년 1분기 기간의 104에서 올해 첫 3개월 동안에는 125로 늘었다고 크레딧 보고 회사인 TransUnit과 마켓 시장 조사 기관인 J.D. Power 밝혔다. 비율 125는 대출자의 대출 규모가 차량 값어치의 125%에 해당 된다는 말이다.

Bloomberg 기사

[중국 경제]

WSJ: China Cuts Borrowing Rates Again in Bid to Juice Recovery

중국, 차입 금리 또 다시 인하

- 중국 은행들이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는 경제 회복세를 재점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화요일 중국 인민은행은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 즉 대출 우대금리 (LPL: Loan Prime Rate) 기준 3.65%에서 3.55%로, 5년 만기 금리는 4.3%에서 4.2%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것이 적합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부채 수준이 높고, 일자리와 성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이 대출에 대한 욕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NYT: Return to Office Enters the Desperation Phase

사무실 복귀 절박한 단계에 접어들다

- AI 판매 회사 Outreach의 CEO Manny Medina는 “사무실의 시골벽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이디어가 더 유기적으로 떠오른다”고 말했다.

- 많은 기업들이 사무실 복귀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디즈니는 주 4일, 아마존은 주 3일 근무로 전환하였고, 구글은 일주일에 3일은 사무실로 출근할 것을 요구했다.
- 이러한 정책들은 하이브리드 근무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을 암시한다. 현재 미국 전체 근무일 4분의 1 이상이 재택 근무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무실 점유율은 팬데믹 이전의 절반 수준이다.
- “경기가 좋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 회사로 복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직원들은 사무실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보안 회사 Kastle의 CEO Mark Ein이 말했다.
- DocuSign의 많은 직원들이 이번 달에 사무실로 복귀했다. 약 70%가 하이브리드, 30%가 완전 원격 근무, 1% 미만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방식으로 결정 되었다.

NYT 기사

CNN Business: Your boss has a plan to get you back to the office **비즈니스 리더들 “직원 사무실 복귀 계획 중”**

- 팬데믹은 끝났지만 팬데믹이 사무직 업무에 미친 영향은 여전하다. 직원들은 재택 근무를 선호하고, 기업들은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지 못하고 있다.
- 하지만 미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가 지난 금요일 20조 불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산업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고했다. 전국의 사무실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5월 전국 사무실 수요는 4월보다 13% 증가했다. CBRE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여전히 13% 감소한 수치이다. 동시에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48% 감소한 수치이다.

CNN Business 기사

CNN Business: I drive-thrus may be good for business. But not for the rest of us **AI drive-thrus, 비즈니스 효과 여부 논란**

- 소매 체인점 창구 바로 바깥에 마련된 AI drive-thrus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밀려드는 고객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고객들과 직원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CKE 레스토랑은 AI 주문 기능을 더 광범위하게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Wendy's는 drive-thrus에 AI 주문 도구를 포함하기 위해 구글 클라우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 한편 고객들은 AI가 주문을 잘못 처리한 사례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AI drive-thrus는 패스트푸드 점원의 근무 시간 혹은 일자리 자체를 빼앗을 수도 있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Amazon to Overtake Walmart as Top in Beauty, Says Morgan Stanley**Morgan Stanley “아마존 뷰티 분야에서 월마트 추월할 것”**

- Morgan Stanley는 2025년 안에 전자상거래의 선두주자인 아마존이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 최대 뷰티 소매업체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마존이 시장에서 약 14.5%, 월마트는 약 13%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월마트가 여전히 미국 뷰티 시장에서 약 2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아마존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화요일 아마존은 0.6% 상승한 반면, 월마트는 약 1% 하락했다. 한편 아마존 주가는 올해 반등하여 50% 상승했다. 월마트 주가는 안정적인 성장 곡선을 보였으며, 올해 9.3%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CNBC: Why Amazon built a second headquarters and how the pandemic reshaped HQ2**아마존, 두 번째 본사 지은 이유 및 팬데믹의 영향**

- 아마존은 이번 주에 HQ2라고 불리는 새로운 동부 해안 본사의 문을 공식적으로 열었다. 이는 Virginia 북부에 위치해 있다.
- 메트로폴리탄 파크(Metropolitan Park)라고 불리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마존이 Arlington에 고용 계획 중인 2만 5천 명의 직원 중 1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22층 오피스 타워 2개가 포함될 예정이다.
- 약 2천 9백 명의 직원이 이미 입주 했으며, 가을에는 8천 명의 직원이 입주할 예정이다.
- 아마존은 직원들이 매일 사무실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HQ2의 디자인을 수정했다. 공동 작업 공간의 좌석이 적어졌다. 직원들은 하루 30%만 책상에 앉아 있고, 나머지 시간은 회의실에서 보내거나 동료들과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Schoettler가 말했다.

CNBC 기사

[보고서]**McKinsey & Company: The future of mobility****교통 모빌리티의 미래**

- 모빌리티는 새로운 기술과 운송 옵션이 개발되고 있는 인기 분야 중 하나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억 대의 차량이 사용되고 있고, 이 중 상당수

가 자가용이다. 인구 1천명당 미국은 868대, 노르웨이는 635대, 멕시코는 39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 하지만 향후 10년 이내에 자가용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부는 이미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로 차량 이동을 규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 수단을 더 선호한다.
- 이러한 변화를 이끈 것은 차량 소비자들이다. 그들은 이동을 자가용에서 대중 교통으로 바꾸고 있다. 책을 읽으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교통 체증 속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맥킨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는 향후 10년 내로 가벼운 교통 수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예: 전기 자전거) 또는 공유 모빌리티의 사용을 늘릴 것이라 답했고, 46%는 향후 10년 내에 자가용을 다른 교통 수단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 또한 인식 변화와 규제도 이러한 변화에 한몫 했다. 150개 이상의 도시에서 자가용에 대한 인식 변화, 자가용 수 제한, 친환경 모빌리티 사용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모빌리티 생태계 미래: 1) 2025년까지 유럽과 북미의 승용차에 레벨 3~4 자동화 기능이 더 많이 탑재되어 자율주행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현재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약 1천 8백억 불에 달한다. 2030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약 4천 4백억 불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McKinsey & Company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정책시차 판단 어려워"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정책 시차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미국과 유럽에서 여전히 5%를 웃돌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 수치는 5월 미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에서 각각 5.3%와 5.4%,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7개국(G7)에서 각각 7.1%와 5.2%를 기록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